

섬머 다크와 윈터 화이트

봄이 오는가 하면 어느 사이엔가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다. 여름이 오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은 백화점이나 시장의 의류상가를 둘러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흰색과 파란색 등 원색의 물결로 가득 차있어 의류 매장에서 여름을 먼저 팔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

흰색이나 청색 제품을 진열하여 그것이 눈에 띄도록 매장을 디스플레이 하는 컬러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든가 청색을 많이 사용하는 안내장, 팜플렛(pamphlet), 디스플레이 등은 여름을 연출하는 프로모션으로 어울린다. 청색은 물, 바다, 냇가, 파란 하늘을 연상시켜 시원한 기분이 들게 한다.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기 어렵고, 그와는 반대로 검정은 빛을 흡수하여 열을 받기 쉽다. 따라서 열을 받기 쉬운 검정색 옷을 피하고 흰색 옷을 여름에 선호하게 된다.

추동용 옷감이라면 검정 옷을 찾게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복장이지만, 가끔씩 한여름에 거리의 중심가를 머리끝부터 구두에 이르기까지 새까맣게 한 복장을 한 여성이 걷고 있는 광경을 가끔 보게 된다. 온통 새까만 단일 색은 프로패셔널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흰색이나 파스텔컬러가 범람하는 사람들 속에 검정색은 홍일점이 아닌 흑일점으로 눈에 먼저 쏠 것이다.

이렇게 단일 색상으로 특히 여름에 입는 새까만 색을 섬머 다크(summer dark)라고 부른다. 섬머 다크는 여성분만 아니라 남성 재킷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면 선염직물인 블랙 워치(black watch)는 그의 대표적인 것이다. 반면에 겨울에 입는 흰색을 윈터 화이트(winter white)라고 부른다.